

'관광'·'태권도'로 지역 경쟁력 찾기 매진

▶ 황인홍 군수의 포부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키워 나갈 것

“군립요양병원 운영·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동력”

“민선 8기 무주군의 최종 목적지는 행복한 군민의 삶이 보장되는 무주다운 무주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인 보다는 경제인다운 면모로 지역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황인홍 군수는 “결국 무주다운에서 무주만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나온다고 본다”며 “무주를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자산인 곳, 역사·문화유산이 즐거움이 되는 곳, ‘무주’ 자체가 비전인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와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또 높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이를 지지대 삼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믿는다”라며 “특화작목이랄지, 생활·관계 인구 유입 등 다각도로 길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8기 무주호가 출범 2년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무주군은 ‘자연특별시’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사업들을 진행하는 등 ‘무주’ 자체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

‘관광’과 ‘태권도’를 제1경쟁력으로 삼아 첨단농업과 청년정책 추진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 ‘무주다운’의 완성을 향한 지난 2년의 숨겨왔던 여정을 되짚어 본다.

▲자연특별시 무주, 1천만 관광객 유치 기반 다져

무주군은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특별시 무주’ 실현을 공표했다.

이후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존·복원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실행 중으로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반디 테마 빛 거리 조성, 남대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 등 읍면 관광 자원과 사업과 무주반딧불축제(2023년 42만명 방문, 경제효과 150억원 / 3무(無) 축제로 생태 환경축제 정체성 강화 / 2024 피너클어워즈 ‘에코투어리즘 축제 선정’ 등), 산골영화제(2023 국내 영화제 지원 사업 최우수 선정, 2024년 총관객 3만5,000여명·유료 관객 1만8,803명 / 21개국 영화 96편 상영 및 공연, 토크, 전시 진행 / 바가지요금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착한 영화제 찬사 / 교통·숙박 패키지 신설 호평), 반딧불이 신비탐사(2023년 1만여 명 참가) 등이 기반이 되고 있다.

무주군은 ‘지역 관광발전지수 1등급’, ‘전국 10대 지역관광 매력 도시’, ‘대한민국 발발곡곡 100선’에 이름을 올렸으며 태권도원과 반디랜드(2023~2024년 한국관광 100선), 무주 곤충박물관(우수 박물관 인증), 향토산자연휴양림(&무주눈꽃 2023 전북형 자연치유 관광지 선정) 등이 무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각인됐다.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추진 중으로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주군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며 성과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올해 12월까지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등 지역 내 상가에서 10만 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반디랜드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 머무와인동굴 입장료를 50%(최대 2인) 할인해 준다. 숙박 시설인 반디랜드 톨나무집도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지난해부터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로 차별화시키며 42만명이 방문해 15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21개국 96편의 영화와 공연, 전시 등을 진행하며 3만5,000여명의 관객들을 불러 모았다.

▲태권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기반으로 태권시티 무주 도약

올해 2월에는 태권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선정이 됐다. 이는 태권도를 통한 돌봄과 교육, 취업, 정주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무주군은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사업을 연계·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태권도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설립 추진(시행기관: 무주교육지원청)을 위한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2024년 2~5월)가 마무리된 상태로 무주군은 향후 특목고 전환에 따른 지원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해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태권도비랜드 내에 설치할 로봇 구동 시험(12m, 3가지 폼세, 60개 이상 동작 구현)도 완료한 상태로 올해 설치를 완료, 2025년까지는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관과 비밀기지, 테마존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태권도 사업들의 은퇴 이후 삶터가 될 태권



마을 조성(5만3,563㎡ 규모)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진입도로도 조성 공사는 진행 중(2025년 완공)이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입학장으로 받아서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이자 평화의 사절로 육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으로 국익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사업화, 상품화하기 위한 동력이다. 무주군은 태권시티 무주 완성과 올림픽 영구 종목화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는 무주군과 무주교육지원청(사업 주체)이 함께 무주군 무공고등학교를 태권도 특성화 학교로 전환, 태권도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고로 2026년 개교를 목표로(전교생 외국인 20명 포함 120명)로 한다.

현재 무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추진계획 수립부터 무주군 교육거버넌스위원회 회의 개최, 설립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는(2024년 2~5월) 등 개교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가계&상권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충전



- ① 지난해 6월 3일 드론을 통해 촬영된 무주산골영화제 현장.
- ② 지난 5일 열린 무주읍상권활성화 추진협의회 1차 회의.
- ③ 지난달 29일 문을 연 무주상상반디숲.
- ④ '2024 피너클 어워즈' 에코투어리즘 축제분야 수상을 받은 무주반딧불축제.
- ⑤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회

▲스마트하게 모두의 행복도시 실현

2022년부터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32억 원을 기반으로 고령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40억원)과 군립요양병원 건립·운영(66억원), 무주군 청년센터(40억원), 무공~안성 고령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40억원), 고령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24억원),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8억원)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 최초 복합문화시설인 '무주상상반디숲'도 개관을 했다.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지난해 3월 제정)'와 청년안정기금(지난해 30억원)을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특돌(2024년 30개 사업 64억원)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무주를 만드는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조성 중이며 에코빌리지 2차분도 55,840㎡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이외 4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며 추진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주상상반디숲은 연면적 4,686㎡ 규모로 2022년 3월 착공해 올해 5월에 문을 열었다. 도서관(2~3층)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4만 3,358권으로 무주군은 지역 내 5개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스마트도서관(무공, 부남)과도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가족센터에서는 돌봄과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한다.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에는 다목적홀, 마루교실, 학습실 등이 자리해 있다.

무주군립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5,129㎡) 규모로 36개 병실, 126병상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한방치료실과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을 갖춘 예정이다. 무주군은 군립요양병원을 거점으로 보건의료원(협진 체계 구축)과 종합복지관(치매환자 사후관리, 치매 예방 교육), 평화요양원(치매 노인 통합돌봄, 치매 가족 상담 지원)을 잇는 공공의료 환경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연특별시 무주, 반딧불축제·산골영화제 등이 기반 태권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태권시티 도약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이어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반, 스마트팜·복합문화시설 조성

2022~2023년 문화관광형시장(반딧불시장) 육성(성과 평가 A등급)에 이어 2024~2026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에 선정돼 2026년까지 36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반딧불시장을 중심으로 400여개 점포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난해 무주군 소상공인 안정 기금 30억원을 조성한 무주군은 카드수수료 확대(기존 30만원→50만원)와 화재보험료를 지원(가입비 최대 20만 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무주군은 기업 민원 및 어려움 해소를 위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및 신속 처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답례품 판매로 지역 경제활성화도 주도하고 있다.

무주사랑상품권 유통으로 가계경제에 숨을 불어 넣고 있는 무주군은 개인 할인판매 금액 한도 상향(기존 50만원→70만원), 카드형 상품권 5% 페이백 이벤트 등으로 600여억원의 무주사랑상품권 판매고를 달성(2023~2024년)했다.

무주읍 상권활성화는 쇠퇴한 무주읍 상권환경을 개선하고 반딧불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추진(대상 반딧불시장을 중심으로 전·후간 도로에 위치한 상가 417곳)하는 것으로,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단(비영리법인)이 주축이 돼 2026년 12월까지 △무주반딧불시장의 재탄생, △무주 투어상권 조성, △참여형 지역상권문화 창조를 큰 테마로 반딧불 빛거리 조성하고 반딧불시장 디자인 개선 등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